

송순 연구의 과제와 전망*

최재남**

<차례>

1. 송순 연구의 출발
2. 연구의 추이
3. 새로운 가능성 또는 전망
4. 소결

1. 송순 연구의 출발

면앙정 송순(俛仰亭 宋純, 1493~1583)에 대한 연구는 조운제가 「농암과 면앙정의 강호가도」(『조선시가사강』, 1937)에서 『계음만필(溪陰漫筆)』·『견한잡록(遣閑雜錄)』·『기촌집(企村集)』·『패관잡기(稗官雜記)』·『지봉유설(芝峰類說)』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이현보와 함께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선창자·수립자로 지목한 이후, 강호가도 이론의 중요한 한 축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어서 조운제는 『국문학사』(1949)에서 「자연미의 발견」으로 정리하였으며, 최진원이 이를 「강호가도연구 (『국문학과 자연』, 1977)로 확장시켜 나갔다. 한편 이병기는 「면앙정과 시조」(『국문학전사』, 1957)에서 몇 편의 시조를 언급한 바 있다.

그 이후 송순에 대한 연구는 양적인 면에서나 내질의 면에서 풍부한 성

* 본 연구는 2006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연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 졌음.

** 경남대학교

과를 보여주고 있다. 학위논문으로 보고된 것을 비롯하여 단행본으로 정리된 것까지 포함하면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본 연구는 송순에 대한 지금까지 연구의 추이를 개략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새로운 가능성과 전망을 제시하는 데에 목포가 있다.

2. 연구의 추이

송순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김동욱의 「임란전후가사연구」(『진단학보』 25·26·27합, 1964)인데, 이 논문에서 『잡가』에 실린 국문본 〈면양정가〉가 소개되었다. 그리고 『잡가』는 『국어국문학』 39·40 합병호에 영인 수록되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면양정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가단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호남가단에 대한 연구¹⁾가 나왔으며 이어서 면양정가단·성산가단 등으로 세분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제출된 연구 성과는 우선 학위 논문을 들 수 있고, 다음으로 개별 논문으로 제출된 것, 그리고 단행본으로 간행된 것들을 들 수 있다. 연구목록은 참고문헌으로 제시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 가운데 『고시가연구』 제4집(한국고시가문학회, 1997)에 수록된 6편의 논문은 송순 연구의 중간 결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다.

김성기, 「면양정가의 가맥에 대한 연구」

김신중, 「송순 시조의 전승 양상과 문학사적 의미」

김진영, 「송순의 문학세계」

1) 정익섭, 『호남가단연구』(진명문화사, 1975).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정재호, 「면앙정가의 국문학사상 위치」
최한선, 「면앙정 송순의 한시」

개괄적으로 검토할 때 송순에 대한 연구는 몇 가지 경향성을 띠는 것으로 확인된다.

첫째, 강호가사의 시각에서 〈면앙정가〉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자연이나 전원 생활을 다룬 가사라는 입장에서 〈면앙정가〉 개별 작품에 주목하는 경우이다.

둘째, 광의의 작가론을 포괄하는 입장에서 송순의 삶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연보를 비롯한 주변 자료를 통하여 송순의 삶을 재구하고 이를 준거로 송순의 작품을 살피고자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셋째, 면앙정 주변의 경관과 〈면앙정가〉와의 관련을 사실적인 측면에서 살핀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작품의 산생 현장과 작품 내의 구성을 연결시켜 이해하려는 태도를 주목할 수 있다.

넷째, 〈면앙정가〉와 〈성산별곡〉의 관련을 비롯한 선후 작품과 작가와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작품의 계보를 마련한다든가 작가의 교유 관계를 통하여 작품을 살피고자 하는 입장이다.

다섯째, 호남가단 혹은 면앙정가단으로서의 집단적인 문학 활동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수 있다. 송순 한 사람에게 한정하지 않고 지역적 연고나 학문적 연원을 통하여 집단적인 교유에 주목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섯째, 송순이 남긴 한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국문으로 된 작품에 비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한시를 그의 삶과 연결시켜 주목한 경우나, 몇몇 작품을 중심으로 사회적 태도와 관련짓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송순 연구는 지금까지의 경향성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3. 새로운 가능성 또는 전망

송순 연구와 관련하여 우선 지금까지 흘간했던 부분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국문 작품을 남겼다는 이유로 무의식적으로 칭송 일변도로 나아갔던 자세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문 작품을 본격적인 글쓰기의 하나로 인식했다기보다 한시 혹은 한문 글쓰기의 보완 작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점을 간과했던 연구풍토에 대한 반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우리가 흘간했던 사실 가운데 하나는 삼종숙 송흠(宋欽, 1459~1547)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전혀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송순의 삶의 자세와 문학의 기반을 형성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이 부분을 가볍게 보고 말았다.²⁾

송순의 고조부 희경(希璟)과 송흠의 증조부 귀(龜)는 형제간으로, 송순은 송흠의 삼종질이다. 태종 4년(1404)에 담양으로 귀양을 간 적이 있는 송희경이 함양군수 등을 역임하고 난 뒤 만년에 담양으로 퇴로한 것으로 보인다.

안등(安騰)을 상주로, 김음(金愔)을 창평으로, 송희경을 담양으로, 유장(柳暲)을 청주로 귀양보내었다.³⁾

송흠의 『지지당유고』와 송순의 『면앙집』 등의 기록을 통해 송순이 어린 시절부터 삼종숙 송흠의 문하에서 수학했으며, 평생 동안 마음 속으로 삶의 태도를 배우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연보에서는,

기축년 가정 8년 중종 24년(1529), 선생 37세라.

2) 최재남, 「송흠 귀향의 반향과 송순 문학의 기반」, 『한국문학논총』 43집(한국문학회, 2006.8), 5~35면

3) 『태종실록』 권7, 4년 6월 정유, 『국역 태종실록』 2, 55면

10월에 돌아가서 어머니를 뵈다.

이 때에 단문숙 지지당 송흠 공이 본 고을에 부임하다. 화목과 우애가 서로 절실하였는데, 공은 일찍이 양팽손 교리와 함께 그 문하에서 공부하여 이에 이르러 더욱 돈독하였다. (己丑 嘉靖八年 中宗 二十四年 先生 三十七歲 十月 歸覲 是時 袒免叔 知止堂宋公欽涖本府 睦愛相切 公早與梁校理彭孫遊其門 至是尤篤)⁴⁾

라고 기록하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능성(綾城) 출신인 양팽손 등과 함께 송흠의 문하에 나아갔다는 것인데, 구체적인 연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양팽손의 문집인 『학포집』의 기록을 참고하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양팽손의 현손 양세남(梁世南)이 쓴 「가장 에는 연산군 6년(1500) 양팽손의 나이 13세에 송흠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하였다고 적고 있다.⁵⁾

한편 『학포집』 「연보」에서는 이보다 3년 뒤인 연산군 9년(1503) 양팽손의 나이 16세에 송흠의 문하에 나아가 배웠다고 적고 있다.⁶⁾

「가장 과 「연보」 사이에 차종이 있다. 연산군 6년(1500)이라면 송순은 8세쯤이고, 연산군 9년(1503)이라면 송순은 11세쯤이다. 연산군 6년이면 송흠이 귀양을 청하여 고향인 영광에서 지내던 때이고, 연산군 9년경이면 외간상을 당하여 고향에서 거상하던 기간이다.

이제 몇 가지 기록을 종합하면 송순은 10세 무렵에 삼종숙인 송흠의 문하에 나아가 훈도를 받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송흠의 문집인 『지지당유고』에는 문인으로 송순·양팽손·안처함(安處誠)·김맹석(金孟碩)·송석현(宋錫賢)⁷⁾ 등 다섯 사람이 올라 있다.

중종 16년(1521)에 광주목사로 부임하는 송흠을 송별하면서 지은 <봉

4) 『俛仰集』 권5, 「年譜」, 『한국문집총간』 26, 275쪽.

5) 『學圃先生文集』 卷之三, 附錄「家狀」, 『한국문집총간』 21, 177면.

6) 『學圃先生文集』 卷之四, 附錄「年譜」, 『한국문집총간』 21, 185면.

7) 『知止堂遺稿』 제사 별록, 「孝憲公門人錄」

별종장영공흠부광주(奉別宗丈令公欽赴光州)>8)나 중종 32년(1537) 경에 송흠의 <관수정(觀水亭)>에 차운한 <차송사재관수정운(次宋四宰觀水亭韻)>9) 등을 통하여 송순의 인품을 흠모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으로 삼고자 하는 자세를 읽을 수 있다.

한편 송흠은 <차송장령순별장(次宋掌令純別章)>10)을 지어서 송순의 시에 차운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송순의 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송흠과 관련되는 기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계사년, 가정 12년 중종 28년(1533), 선생 41세라.

9월에 지지당이 전라도관찰사에 배수되다.(癸巳 嘉靖十二年 中宗 二十八年 先生 四十一歲 九月 知止堂拜全羅道觀察使)

신축년, 가정 20년 중종 36년(1541), 선생 49세라.

이 해에 지지당 송공이 특별히 좌참찬에 제수되었는데 은혜에 사례하고 체직을 빌어서 윤허를 받고 4월에 남쪽으로 돌아가는데 온 조정에서 동대문 밖 한강 가에서 전별하다.(辛丑 嘉靖二十年 中宗 三十六年 先生 四十九歲 是年 知止堂宋公特授左參贊 謝恩乞遞 蒙允 四月 南歸 傾朝餞別于東大門外漢江上)

정미년 가정 26년 명종 2년(1547), 선생 55세라.

9월에...(중략)... 이에 앞서 선친의 옛 터에 나아가 효은당을 새로 짓고, 이에 이르러 지지당 송공에게 기문을 부탁하고, 청송당 성공이 편액을 짓다. 12월에 지지당 송공의 상에 곡하다.(丁未 嘉靖二十六年 明宗 二年 先生 五十五歲 九月... 先是 就先考舊基孝恩堂重創之 至是請知止堂宋公記之 聽松成公題其扁 十二月 哭知止堂宋公喪)

이상 연보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송순은 늘 가까운 곳에서 송흠을 모

8) 『俛仰集』 권1, 『한국문집총간』 26, 185면.

9) 『俛仰集』 권1, 『한국문집총간』 26, 198면.

10) 『俛仰集』 권4, 『한국문집총간』 26, 243면.

신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흠모하면서 발자취를 뒤따르고 어려운 일을 상의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청렴과 효성으로 평가되는 송흠의 삶이 보여 준 실천적 태도는 송순이 평생을 두고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송흠이 관수정에서 마음을 새긴 일과 기영정의 잔치 자리에서 양로연을 베푼 일을 송순은 면앙(俛仰)의 내면화를 통해 이어가고자 했던 셈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자신의 삶을 추스르는 나침반으로 삼종숙이자 스승인 송흠의 실천적 삶을 되새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문집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비평적 검토가 새삼 필요하다.

한 예로 <면앙정가>의 한 대목을 들 수 있다.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면앙정가>를 『면앙집(俛仰集)』에는 한문으로 번역하여 실어놓았는데, 원문으로 추정되는 작품이 『잡가』에 실린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한역본과 『잡가』에 수록된 내용을 면밀하게 견주는 일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을 예로 들면, 한역본의 “紛無間兮可休 則路徑兮雖夷”는 『잡가』에 실린 것을 중심으로 “쉴 스이 업거든 길히나 편허리야”로 읽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편허리야”로 읽지 아니하고 대부분 “전허리야”로 읽어 왔다는 점이다.

쉴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허리야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 속』, 165면)

쉴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허리야 (이상보, 『이조가사정선』, 35면)

쉴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허리야(쉴 사이 없는데 길이나 전하겠나?)

(최강현, 『가사』 I, 『한국고전문학전집』 3, 123면)

쉴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허리야 (김성기, 『면앙송순시문학연구』, 304면)

쉴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허리야(길이야 바꿀 것이냐)

(최철·손종흠, 『고전시가강독』, 228면)

그런데 이 부분의 한역을 검토할 때, “전허리야”로 읽어 온 부분의 한역이 “夷”에 해당하는데, “夷”는 “평평하다”의 뜻이 있고, “전허다”의 뜻은 포

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편허리아”로 제대로 읽어서 “평평하랴?”로 풀어야 할 것이다. 『잡가』에 실린 작품을 면밀히 읽어보면 ‘교’을 ‘조’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한역가의 문맥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물론 『잡가』의 영인 상태가 흐릿하여 오독할 개연성은 있고, 이러한 책임을 김동욱이 『잡가』에 실린 작품을 대교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돌릴 수 있을지라도, 이제 누구나 『잡가』의 영인 자료나 문집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잘못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예로 송순이 남긴 몇 편의 사회비판적 한시에 대한 정확한 재평가 문제이다. <문개가(聞丐歌)>를 비롯하여 <목가산(木假山)>, <고죽가(枯竹歌)>, <영구(詠鷗)>, <문인가곡(聞隣家哭)>, <탁목가(啄木歌)> 등은 구체적 현실의 삶에 바탕을 두고 지은 작품이라기보다 독서당에서 사가 독서하는 동안에 의식을 앞세워서 지은 사회시로 평가해야 할 듯하다.¹¹⁾

왜냐하면 이 시편들은 <영사(詠思) *기축독서당상계(己丑讀書堂朔啓)> 다음에 편성되어 있고, 또 <기축시월 자남향투숙광정역(己丑十月 自南鄉投宿廣程驛)>의 앞에 수록되어 있어서 기축년인 중종 24년(1529) 독서당에서 사가 독서하는 동안에 지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영사>에서,

평소에 헛되이 뇌락(磊落)의 뜻을 일으키어
한 사다리도 문득 높은 하늘에 들고자 하였네.
아침에는 양곡에서 놀고 저녁에는 몽사에서 노닐며
곧바로 해와 달과 서로 뒤지거니 앞서거니 하네.
용을 타고 봉을 끼고 사방을 유력하면
만리에 바람을 따라 얼마나 아득하랴?
산은 몇 점 구기가 되고 바다는 구기가 되는데
눈이 다하는 어느 곳에서 머뭇거리랴?

11) 임형택, 『이조시대 서사시』 상(창작과 비평사, 1992)에서 <聞丐歌>, <聞隣家哭>과 <田家怨>을 들고 체제 모순과 삶의 갈등을 그린 서사시로 다루고 있다.

쓸데없는 계획을 널리 펼치지 못함이 안타깝거니와
 배 밑에는 쇠잔한 삶이 서른 해이네.
 귀에는 들어서 이는 것이 끊어지고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데
 우매한 성명은 굳어짐을 달게 여기네.
 고초를 겪으며 장대한 뜻이 이미 사라져 없어지는데
 다행히 이 마음은 물질을 추구하며 옮겨다님을 벗어나네.
 천지는 아득하고 세월은 고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금석처럼 단단하기를 바라네.
 平生枉作磊落意 一梯便欲窮高天
 朝遊陽谷夕濛汜 直與日月相後先
 乘龍挾鳳歷四方 從風萬里何茫然
 山爲點灸海爲勺 眼窮何處成連遼
 可憐虛計未廣張 篷底殘生三十年
 耳絕聞知目無見 庸庸性命甘拘攣
 崎嶇壯志已消磨 此心幸免從物遷
 乾坤悠久歲月稠 終始願如金石堅

라고 한 것으로 미루어 당시 정치적 입지 등에서 내면적 갈등을 겪고 있
 었던 시기에 자신의 내면을 추스르는 방향으로 독서체험을 의식적으로 작
 시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보」에서는 기축년 가을에 호당에 분번(分番)되고, 시월에 귀근했다
 고 되어 있는데, 중종실록을 확인하면, 중종 24년(1529) 4월에 사간원
 헌납이 되었다가 25년(1530) 2월에 사헌부 지평이 되었다는 내용만 나온
 다. 다만 중종 24년(1529) 8월 기사일에 “검상 홍서주 대신에 독서당에
 다른 사람을 입번시키라.”¹²⁾라는 기사가 있어서 이때 독서당에 분번된 것
 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셋째, 실록 등의 기록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실록을 일별하면 중종 15년(1520)년 시권에 관한 기사를 비롯하여 선
 조 13년(1580) 고향에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기사에 이르기까지, 150

12) 『중종실록』 권66, 24년 8월 기사.

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이름이 나오는 기록을 확인한 것이지만 직접 거명은 되지 않더라도 송순과 관련된 기사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는 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앙의 정치 상황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리하여 송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성숙된 연구자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송순의 처신, 송순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송순의 역할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송순의 문학에 대한 학문적 평가가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종 14년(1519) 기묘별시방에 을과 1인으로 합격한 송순이 기묘사림에 대해 가져야 하는 책무, 기묘사림을 밀어낸 정권에서 검열(檢閱)을 출발로 대교·수찬·정언·교리·헌납·지평·검상·사간 등의 청요직을 거치면서 정치현실에서 느끼거나 대치했던 여러 가지 내용,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도 한때 삼경설에서 일경(一選)¹³으로 지목되었던 점, 을사사화 이후에 귀양살이를 한 뒤에 실록에서 인품에 대한 평가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할 것이다.

넷째, 내면의 추이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송순의 내면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좇아서 그 특성을 면밀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작업은 앞에서 제시한 셋째의 과제와 병행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면앙집』에 실린 시 작품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내면의 추이를 반영하는 작품은 그 시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산야영회(山夜詠懷)〉(庚辰), 〈호음 2수(曉吟二首)〉(辛巳), 〈모사(暮思)〉(辛巳), 〈자경(自警)〉(辛巳), 〈자경 2수(自警二首)〉(乙酉), 〈견회(遣懷)〉(丙戌), 〈영사(詠思)〉(己丑), 〈사추회(寫秋懷)〉(己丑), 〈여회 육언(旅懷六言)〉(己丑), 〈면앙정(俛仰亭)〉(이상 권1), 〈객회(客懷)〉, 〈면앙정제영(俛仰亭題詠)〉(이상

13) 朴氏의 黨을 一選으로, 己卯의 黨을 일경으로, 宋純의 黨을 일경으로 삼은 三選說이 유포될 정도로 송순의 정치적 입지는 강화되어 있었던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중종실록』 권86, 32년 11월 임오조 참조).

권2), 〈견회 2수(遣懷二首)〉(이상 권3) 등을 들 수 있다. 시제에서 이미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이는 외부 상황의 변화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삶을 반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통해 송순의 내면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지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소결

아울러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연구를 위하여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 몇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언어와 표현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하여 우리말의 표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발상법의 확산, 표현의 묘미 등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자양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송순 연구에서 늘 중심을 차지했던 〈면앙정가〉를 비롯하여 그 영향권이라 할 수 있는 〈성산별곡〉을 포함한 정철의 작품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과정으로 두 가지 방향이 제기되는데, 하나는 가사에 표현된 언어이고, 다른 하나는 일상적 언어의 가사적 표현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 작품을 통해 언어와 표현을 확인하고, 이를 다시 유형 분류에 적용하면서 동시에 갈래론으로 확충하여 다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작품의 문학성을 해명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차적 목표로 가사의 언어와 표현을 통하여 우리들의 일상언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함께 모색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나 상황을 언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 그 활용의 준거를 가사의 언어와 표현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벼슬살이를 정리하거나 벼슬살이의 틈틈이 귀향하여 향촌에서 지내는 동안 향촌생활이나 향촌의 문화를 반영하는 양상을 이해하는 방향이다. 다시 말해 향촌사회의 문화공간에서 가사나 시조를 비롯한 문학을 향유하는 양상을 점검하는 일이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한 참조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향촌문화공간으로서의 당(堂)과 정(亭)은 향촌사회의 문화를 조절하는 기능까지 맡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강학 공간으로서의 당과 놀이 공간으로서의 정이 지닌 본래의 성격과 함께 각 지역에서 편차를 보이는 양상까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I

- 이종건, 「송순의 시가론」,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79.
김기도, 「송순의 시가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윤혜희, 「면양정 송순의 한시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1988.
지종욱, 「호남시조의 계보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1988.
김성기, 「송순의 시가문학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1991.
이상희, 「면양정 송순의 시가연구」, 목포대 석사학위논문, 1991.
김은미, 「조선초기 누정기의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1.
유혜경, 「16세기 가사문학연구」, 세종대 석사학위논문, 1992.
경환철, 「면양정 시가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1993.
안동현, 「송순의 시가문학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강희열, 「제영시 '면양정 삼십영' 연구」,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1995.
장태순, 「송순의 풍류시가연구」, 경원대 석사학위논문, 1996.
이재원, 「면양정 송순의 한시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96.
김광조, 「조선전기 가사의 장르적 성격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창원, 「16세기 사람의 강호시가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7.
- 안혜진, 「강호가사의 변모과정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순희, 「송순 시가의 특성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0.
- 김경희, 「면양정의 의미 연구」, 수원대 석사학위논문, 2001.
- 이힐한, 「향촌사회의 문화공간과 가사 향유」,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2.
- 문영숙, 「면양집 분석을 통한 면양정 경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02.
- 윤정아, 「송순의 국문시가 연구」, 충북대 석사학위논문, 2004.
- 박종우, 「16세기 호남 한시의 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조아라, 「강호가사 <면양정가>의 교육방안 연구」,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2006.

II

- 이재수, 「면양정 송순」, 『사상계』 8월호, 사상계사, 1959.
- 정재호,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의 비교연구」, 『현대문학』 통권 151, 1967.
- 양지환, 「송순과 그의 시가」, 『동도』 8, 동도공고, 1969.
- 정익섭, 「면양정 가단의 형성과 시가활동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5-57호, 국어국문학회, 1972.
- 정익섭, 「송순의 인간성을 논함」, 『상산이재수박사환력기념논문집』, 형설출판사, 1972.
- 정익섭, 「송순의 단가고」, 『호남문화연구』 6집, 전남대 호남문화연구소, 1974.
- 이종건, 「면양정의 시조」, 『새국어교육』 29·30호, 한국국어교육학회, 1979.
- 이종건, 「송순의 시가론」, 『동악어문논집』 13집, 동악어문학회, 1980.
- 김기탁, 「면양정가의 이해」, 『영남어문학』 13, 영남어문학회, 1980.
- 이종건, 「송순 한시의 풍월」, 『국제어문』 2집, 국제대학 국어국문학과, 1981.
- 김철조, 「면양정 송순의 서사적 한시의 세계」, 『민족문화논총』 2·3집, 영남대학교, 1982.
- 김동주, 「전남지방의 누정조사보고1」, 『호남문화연구』 14호, 호남문화연구소, 1985.
- 박준규, 「송면양정연구- 그의 생평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25호, 국어학회, 1985.
- 진무현, 「가사형태의 연구에 대한 고찰」, 『국어국문학논문집』 7집, 동아대,

- 1986.
- 정익섭, 「호남가단에서의 하서 김인후의 위치」, 『동양학』 17집,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1987.
- 윤혜희, 「송순시의 자연표상」, 『어문학교육』 10집, 한국어문교육학회, 1987.
- 윤혜희, 「송순시에 있어서 달의 이미지 고찰」, 『어문학교육』 11집, 한국어문교육학회, 1989.
- 김동준, 「송순론」, 『한국문학작가론』, 현대문학, 1991.
- 김성기, 「사대부 가사에 나타난 우리말의 아름다움」, 『한글』 214호, 한글학회, 1991.
- 노인숙, 「송순시가연구」, 『청람어문학』 4집, 청람어문학회, 1991.
- 이상익, 「서경과 서정의 조화 - 〈면양정가〉의 구성과 표현」, 『한국고전시가작품론』, 집문당, 1992.
- 최상은, 「면양정 송순 시가의 미의식」, 『성대문학』 28, 성균관대, 1992.
- 김성기, 「송순의 면양정단가 연구」, 『고시가연구』 1집, 전남고시가연구회, 1993.
- 고영진, 「16세기 호남 사림의 활동과 학문」, 『남명학연구』 3집, 경상대, 1993.
- 김성기, 「송순의 오륜가 연구」, 『시조학논총』 10집, 한국시조학회, 1994.
- 문은정, 「송순의 면양정가의 내용세계와 성격연구」, 『인천어문학』 10집,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 김현행, 「면양정 송순과 송강 정철의 관계에 대하여」, 『성대문학』 14호, 성균관대, 1994.
- 류연석, 「전남지방의 가사문학」, 『남도문학연구』 5,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1994.
- 조선영, 「〈면양정가〉와 〈성산별곡〉에서의 의경 고구 시론」, 『동악어문논집』 30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995.
- 이재원, 「면양정 송순의 한시연구」, 『한문학논집』 14집, 근역한문학회, 1996.
- 김신중, 「송순 시조의 전승 양상과 문학사적 의미」,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학회, 1997.
- 최한선, 「면양정 송순의 한시」,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학회, 1997.
- 김학성, 「송순 시가의 시학적 특성」,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학회, 1997.
- 김진영, 「송순의 문학세계」,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학회, 1997.
- 김성기, 「면양정가의 가맥에 대한 연구」,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학회,

- 1997.
- 정재호, 「면앙정가의 국문학사상 위치」, 『고시가연구』 4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7.
- 정익섭, 「송순론」, 『한국문학작가론』, 형설출판사, 1997.
- 길태숙, 「면앙정 국문시가에 나타난 자연인식」, 『연민학지』 5집, 연민학회, 1997.
- 김일근, 「면앙정 송순 자필분재기의 국어문학적 의의」, 『건국어문학』 21·22집, 건국대 국문학과, 1997.
- 정재호, 「〈면앙정가〉의 구조」, 『한국가사문학의 이해』, 고대출판부, 1998.
- 김일근, 「면앙정 송순 자필분재기의 국어문학적 의의」, 『국어국문학』 121호, 국어국문학회, 1998.
- 정상균, 「송순시가연구」, 『고시가연구』 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8.
- 전일환, 「호남가단의 시가문학」, 『고시가연구』 5집, 한국고시가문학회, 1998.
- 이승남, 「강호가사와 문학교육」, 『국어국문학』 124호, 국어국문학회, 1998.
- 김성기, 「면앙 송순 시조의 전승 연구」, 『시조학논총』 16집, 한국시조학회, 2000.
- 김성기, 「면앙정 송순의 자연시 연구」, 『남명학연구』 10집, 경상대, 2000.
- 김동욱, 「담양 면앙정의 건축 형태」, 『건축역사연구』 24, 한국건축역사학회, 2000.
- 김두규,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본 면앙정 입지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권 2호, 한국정원학회, 2000.6.
- 임형택, 「16세기 광·라 지역의 사림층과 송순의 시세계」, 『고전시가의 이념과 표상』, 1991.
- 문영숙·김용기, 「면앙집 분석을 통한 면앙정 경관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20권 2호, 한국정원학회, 2002.6.
- 박요순, 「면앙정가의 심미의식」, 『고시가연구』 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 최진원, 「면앙정가의 화중시」, 『고시가연구』 9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 박연호, 「장르론적 측면에서 본 17세기 강호가사의 추이」, 『어문논집』 45집, 민족어문학회, 2002.
- 김성기, 「송순의 면앙정삼언가 연구」, 『남명학연구』 13집, 경상대, 2002.
- 고광수, 「고전문학 교육의 한 방향」, 『문학교육학』 10호, 역락, 2002.
- 최혜진, 「송순의 시세계와 이념」, 『한국고전시가의 이념과 지향』, 월인, 2003.
- 문영오, 「〈면앙정가〉의 풍수지리학적 접근」, 『도교문화연구』, 한국도교문화학

회, 2003.

조정림, 「고봉 기대승의 〈면앙정기〉 연구」, 『인문학연구』 31집, 조선대, 2004.
최재남, 「송흙 귀향의 반향과 송순 문학의 기반」, 『한국문학논총』 43집, 한국
문학회, 2006.8.

III

김동욱, 『한국가요의 연구·속』, 선명문화사, 1975.
이종건, 『면앙정 송순연구』, 개문사, 1982.
이강로 외, 『문학의 산실 누정을 찾아서』, 시인사, 1987.
정익섭, 『개고 호남가단연구』, 민문고, 1989.
조기영, 『하서시학과 호남시단』, 국학자료원, 1995.
박준규,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출판부, 1998.
김성기, 『면앙 송순 시문학연구』, 국학자료원, 1998.
박준규·최한신, 『달관과 관용의 공간 면앙정』, 태학사, 2000.
장선희, 『호남문학기행』, 박이정, 2000.
박준규 외, 『호남의 누정문학』 2·3, 태학사, 2001.
최상은, 『조선 사대부가사의 미의식과 문학성』, 보고사, 2004.

〈Abstract〉

Present Subjects and Views in Studying on Songsun(宋純)

Choi, jae-nam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heck the latest tendency in studying on Songsun(宋純, 1493~1583) and to make manifest several view points.

We will consolidate latest tendency in studying on Songsun as follows. First, A focus on Myunangeongga(면양정가) as a Kanghogasa(강호가사). Second, A deep touch on the lives of Songsun. Third,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Myunangeong. Forth, the contrast study on works. Fifth, An interest on Honamgadan(호남가단). And Sixth, A study on Sino-Korean poetry of Songsun.

I make manifest several view points as followings. First, We should consider third joint uncle Songheum(宋欽, 1459~1547) as a literary foundation of Songsun. Second, We must read and interpret every text exactly. Third, We are able to appraise his lives based on objective materials. and Forth, We should scrutinize the change of inner mind through the Sino-Korean poetry of Songsun.

Key words: Songsun, Songheum, literary foundation, exact reading, appraising of lives, change of inner lives.